

떨떠름 뒤에 찾아오는 달달함, ‘포리똥’을 아시나요

영암 신유토마을 ‘포리똥 축제’서 주민과 관광객 추억의 맛·멋에 행복

비오는 주말, 영암군 국사봉 남쪽자락 산속 마을길 1km 가량에 앵두같은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성급한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그 열매 하나를 그대로 입에 가져가 씹다가 곧바로 ‘에웨웨’를 연발하며 속았다는 표정이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60대 부모는, 여남은 열매를 손으로 모으더니 입에 넣고 오래 굴려가며 음미한다. 잠시 후 달달한 추억의 맛을 기억해 낸 듯 얼굴에는 만족의 미소가 번진다.

14일 영암군 금정면 신유토마을에서 마을주민과 방문객 2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제3회 대한민국 포리똥 축제’가 열렸다.

‘2025 전남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로 신유토마을축제위원회(위원장 강병연)가 마을자원인 포리똥 나무로 ‘오감으로 배우고 즐기는’ 축제를 개최한 것. 포리를 ‘포리’로 불렀던 전남 사람들

은, 보리수 열매가 파리똥 같은 점들이 많이 박혀 있다고 ‘포리똥’으로 불렀다.

변변한 먹거리가 없던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5월말~6월초 포리똥이 익는 계절이 오면, 첫맛은 뚝다가 이내 달달함을 주는 열매는 비교불가의 간식거리였다.

이날 신유토마을 주민들은 2017년 영암군과 함께 주민참여숲으로 조성하고, 그간 가꾸은 포리똥 군락으로 마을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동시에 청정마을과 생태 영암을 알리고, 올해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으로 생산한 마을 농산품도 판매하는 1석3조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마을 방문객들에게 1L 단지의 포리똥을 따갈 수 있는 체험기회로 넉넉한 인심을 건넸다.

나아가 마을의 주민힐링센터에서는 포리똥 고추장·발효초·잼 등 가공식품



시식 코너도 마련해 소개하고, 한량무·트로트·장기자랑 공연에 바자회, 음식 나누기도 병행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023년부터 서호면 엄길마을에서 800년 수령의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들놀이음악회가 열려 전

국의 관심을 받았다. 추억의 맛과 정을 알리고, 마을주민의 소득도 높이는 차지만 강한 마을축제의 저변을 계속 넓혀 가겠다. 신유토마을에서 주민자치로 마련한 포리똥축제가 그런 추세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의회, ‘자전거교육 의무화 촉구 건의안’ 채택

제27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자전거교육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일정한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무런 교육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교통안전교육의 공백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청소년의 건강 증진, 독립성 향상, 교통감수성 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크지만,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청소년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때로는 성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박소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인 안전교육 사례가 된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사고 후 조치보다 사고 전 예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나주시 영산강 둔치 자전거대여소에서 실시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지역 차원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교육은 그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다”라며 전라남도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를 촉구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도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은 총 180명의 구례군 읍면 통리대 및 직장대, 기술지원대 소속 1~2년 차 민방위 대원과 지역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민방위 제도 이해와 대원의 역할, 화재 및 지진 대응, 응급처치, 화생방 대응의 4개 분야로 실시되었

구례군, 2025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

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3년 차 이상 대원을 위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됐으며, 7월 13일까지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민방

위(<https://www.civildefense.co.kr/>)를 통해 24시간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구례군에서는 하반기 10월에서 11월 중에 보충교육을 2회 추가로 편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원들에게 교

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1~2년 차 대원은 연 4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만약 주민등록지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시군구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위기를 조기에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 등록 가구이나 실제 혼자 거주하는 가구, 주소는 없

곡성군, 1인 가구 실태조사로 고독사 예방에 총력

지만 곡성군에 거주하는 실질적 1인 가구까지 포함된다.

조사는 읍·면(맞춤형)복지팀과 통합사례관리사 등 41명이 참여하며, 마을 이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협력해 현장 위주의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조사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경제

활동 여부, 사회활동 참여도, 돌봄 서비스 이용 등을 조사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며, 현재 1차 조사는 약 70%가 완료된 상태이다.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도와 우울 상태를 평가해 최종 고위험군을 선정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

지, 민간자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연중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올해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617가구를 전수 조사해 3,22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흥군과 전라남도남부권아동보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13일 회진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개최했다.

이번 인형극은 ‘내 몸은 내가 지켜요’라는 제목으로, 아동들에게 학대의 개념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이해하기

장흥군,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열어

쉽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공연 후에는 간단한 퀴즈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반응을 듣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른에게 알리는 법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총 6명의 자원

봉사자(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하여 인형 조종, 연기, 교육 진행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몇 주에 걸쳐 대본 연습과

공연 준비를 해왔다.

장흥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흥군 제공

고흥군,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현역 대상자 34개월, 보충역 23개월 영농 활동하며 군 복무 대체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20일까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현역 복무 대신 본인의 영농 기반에서 영농 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불가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 통선에 의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현역 임명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23개월 동안 영농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공지한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흥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해탈 같은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도 기쁘게 할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할 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